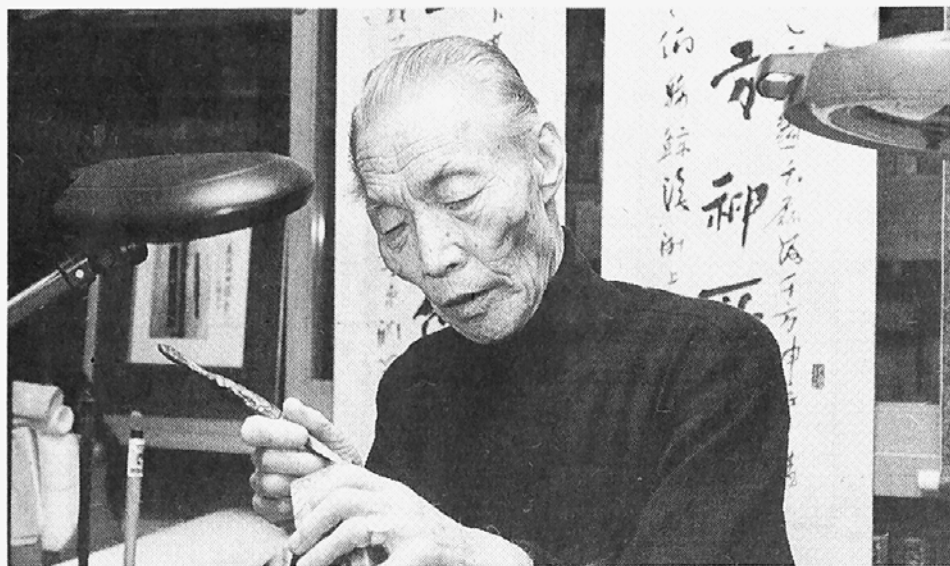


# “무념무상 일때 돌속 글씨 살아나”

## 산문박의 山門

전각가

안 광 석



“물에도 풀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퍼석퍼석한 돌이나 납이 박힌 것은 철필이 건너지 못해요. 이것을 뛰다가 보면 옆의 글씨까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필을 잡으면 혼신의 힘을 다 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는데로 철필이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념무상이 아니고서는 어렵지요.”

무념무상이 될때는 죽어가는 글씨도 살릴수 있다. 글씨도 생동감은 물론 획을 잘못 그으면 죽은 글씨가 된다. 이러한 글씨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마음인 것이다.

수많은 직업 가운데서 문자를 기록하는 일에 전념하는 이들은 많다. 그 가운데 청사 안광석(78, 曉斯 安光碩)은 돌에 글씨를 새기며 한평생을 살고 있다. 하루에 닦아야 10여자, 어떤 때는 한자도 쓰지 못하는 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고 그에게 글씨 받기를 고대한다.

안광석 씨가 하는 일은 도장 파는 일이다. 그렇다고 다른사람 이름자를 파서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근래들어 예술성 높은 작품으로 인정하는 '전각'이 그의 일이다. 적어도 그는 이 분야에 있어 국내 일인자다.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는데도 남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

홍릉의 자택 작업실에 들어서자 강마른 체구의 노인이 “왔으니 차 한잔 해요”라며 익숙한 승지로 차를 낸다.

“돌은 돌을 보면 새기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평생 새기다 보니 좁은 방안에 돌 때가 없을 정도예요.”

이들 증명이라도 하듯 방안은 전각된 인장으로 가득했다. 아마 3천방은 족히 되어보였다. 여기에 결전, 난, 수석, 화첩이 더하여 방안이 어수선했다. 그런데도 거기서 무언가 하나라도 빠지면 방의 위풍이 서지 않을 듯하다. 모두가 조화롭게 느껴지는 가운데 주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방안은 더욱 빛이 나 보였다.

안광석 씨는 이 방안에서 가장 친근한 벗으로 철필을 소개한다. 돌에 글씨를 새기는 칼을 쇠로만 필기구라 하여 ‘철필’이라는 것이다. 20여 년전 일본에서 흥광(興光)이라는 도장 기술자가 현 법선에 박혀있던 대못을 가지



삼학·이기선

## 보살피는 마음을 갖자

초가삼간 집이라 하여도 이러한 말들은 얼마나 생명이 있는가. 말의 생명은 말을 사용하는 자와 말을 건네 받은 사람 사이에 뜻 깊은 교감이 있어야 한다. 말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은 악담, 저주, 모욕, 모멸, 멸시, 천시, 흠대, 빈정, 폭언 등으로 서로간의 감정을 뒤틀리게 한

다. 애어설(愛語)은 중요한 것이다. 사람의 말로서 끌어들이고 꺼잡아 감싸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쉽고 편한 일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오장을 뒤집는 악구를 하게 된다. 이 얼마나 가슴스럽고 불편한 일인가.

우리는 언제나 사랑스럽고 자상한 언어 사용으로 상대방의 생명에 노여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말의 행위가 날로 달로 성숙하면 행위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게 된다. 그것은 말이 가는데로 마음 가는 법을 헤아리게 된다. 이치다.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사람의 말이 부드럽게 되면 무엇을 건네 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이것이 보시

행(布施)이다. 배움처럼 성스러운 행위도 없다.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상대를 꺼잡아 안아올리는 것이고 바치는 마음이다. 보시는 진정코 바쳐 올림이다. 이 바쳐 올림의 마음 속에는 한치의 아상이 있을 수 없고 아집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바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주는 자와 받는 자, 아니 거래되는 물건도 모두가 청정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다. 함께 하여 속달되면 다음 단계가 쉽게 열린다. 봉사설(同事攝)이다. 함께, 공동으로 하는 일이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한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치운다고 하는 것은 욕망의 망종이 하는 일이다. 함께 하는 일, 같이 가는 길, 모두가 하나 되는 일. 이것 모두가 동사설이다. 사회가 물론리, 부도덕한 난세에 접어 들고 있다하더라도 한사람 두사람 아니 몇몇이라도 동사설의 길을 행하는 사람은 이행설(利行攝)도 성만한 사람이다. 이 타보리행(利他高擧行)이 이행(利行)인 것이다. 남이라고 한것은 생각은 아상과 아집을 키워가는 몸부림이다. 남을 나와같이 생각하고 꺼잡아 세워싸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음이 선하게 된 마음씀이다. 우리는 몸부림으로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남을 돌보아 주는 마음씀이 중요할 것이다. 부림을 당하여 악업을 짓는 몸과 입을 씌를 자재롭게 하는 마음을 밝혀야 한다.

사설법은 불교인민의 덕목이 아니라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실천공행하여야 할 윤리강령이다. 우리 모두 나 아닌 모두를 감싸고 돌보면서 살아가는 따뜻한 심성으로 환원하라. 먼저 남을 보살피는 무량심을 길러보자.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10  
사설법

## 화두들면 마음이 가는대로 철필도 움직여 法界圖印 등 2만방 작업...보관분 印譜 출간

그 만들어 그에게 선사한 것이다. 이 철필에는 '일도양단(一刀兩斷)'이란 글이 새겨져 있다.

그는 이제껏 수십년간 이 철필로 무엇인가를 자르고 있었던 것이다.

“전각은 도형성이 풍부한 전서체를 나누나 돌 등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기록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렇다고 전서체만 새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행·초서를 비롯해 모든 문자를 다 새길수 있지요. 이는 전각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넓은 마음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각은 앉은 자세가 중요해요. 반가부좌하고 앉아서 허리를 펴고 자리를 바로 한뒤에 힘을 단전에 댑니다. 화두가 일었을때야 마음이 가는대로 철필이 움직입니다. 숨을 멈출때 새기고 숨을 트할때 돌가루를 훑어 때를 벗기지요. 그러니 전각은 골선(禪)입니다.”

그가 이처럼 전각과 선을 하나로 보는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25세쯤일까, 그는 장용을 피해 밤에 사 동산스님을 계사로 출가했다. 어려서부터 글씨,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그를 동산스님은 기특하게 여겼다. 하루는 편지 한장을 써주며 당시 서예·전각의 일인자 위장 오세장을 소개했다.

“중이 전각하는 것은 의도가 아니냐”는 그의 의심에 동산스님은 “마음에 담았다”며 “화두를 들고 하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에게 전각은 수행자가 찾는 화두가 되었고 철필로 생사를 양단내고자 했다.

50년 가까이 철필을 휘둘렀으니 생사가 어느정도 끊어졌기도 하련만 이 대목에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만다.

“내가 소장하고 있는 책이 많은데 아직도 장서인이 찍히지 않은 요긴한 책이 많아요. 만족한 장서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근래에는 철필이 가다가 글씨를 망쳐버리는 실과는 없다. 글씨를 새기는 기능적인 부분은 완숙단계에 이른 것이다.

흔하들 사람들은 전각을 새기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이는 도법으로 전각에서는 제일 하수로 본다. 칼은 40도로 놓고 밀지말아야 하며 담겨라. 올·양각은 이런것이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두어시간이면 마칠수 있다. 그러나 전각을 새기는 것보다 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평생해 해도 마침이 없는 것이 포자다.

전각은 먼저 전법을 알아야 한다. 갑골문등 13종에 이르는 글씨의 형태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법으로 글씨를 잘써야 한다. 이러한 전법과 장법이 되었을때 사방 4cm 크기의 면에 어떤 글씨를 어떤 크기로 어느 위치에 배치하는가를 정하게 되는데, 전법에서 시작하여 글씨의 위치를 정하기까지를 포자라 한다.

이렇듯 마음으로 살려놓은 작품이 2만방가량 된다. 이 가운데 3천방은 손수 보관하고 있다. 모두가 인보(印譜)로 출간되었다. 특히 15년전 의상대사의 법계도 2백10자를 새긴 73방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3년전에 원효스님 법어를 새긴 1백20방도 귀하게 생각한다. 그는 이 작품들을 넘겨주어야 할 곳을 찾고 있다. ‘말 남아서 시집보내듯 잘살고 천대받지 말아야 하는데’하는 심정이다. 박물관 몇군데에서 그의 작품을 요구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연경가 선화가(禪畫家) 스님의 개인전에서 축사를 했던 적이 있다. 그는 이자리에서 스님의 걸어왔던 모습을 보면서 그림을 보라고 했다. 색이, 디자인이, 구도가 어떻다고 따지다 보면 선화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도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을 생각하며 작품 보기를 바란다.

(이준엽 기자)

애어 자상한 말로 노엽지 않게 재물과 법을 공양하는 일 보시 동사 남과 고락을 함께하는 삶 이웃을 이롭게 하는 행동 이행

다. 애어설(愛語)은 중요한 것이다. 사람의 말로서 끌어들이고 꺼잡아 감싸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쉽고 편한 일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오장을 뒤집는 악구를 하게 된다. 이 얼마나 가슴스럽고 불편한 일인가.

우리는 언제나 사랑스럽고 자상한 언어 사용으로 상대방의 생명에 노여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말의 행위가 날로 달로 성숙하면 행위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게 된다. 그것은 말이 가는데로 마음 가는 법을 헤아리게 된다. 이치다.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사람의 말이 부드럽게 되면 무엇을 건네 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이것이 보시

# 팔공산 은혜사 3월 보살계 불사안내

일시 : 2539년 3월 31일(금) 19:00 ~ 4월 1일(토) 11:00까지(1박 2일, 음력 3월 초하루~ 초이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태양의 광명으로 비추어 줍니다.

온 세계가 범당 아닌 곳이 없으며 지혜와 자비 발원하는 자, 떠오르는 태양처럼 성불의 길 열려 있습니다. 아침 햇빛이 이슬을 녹이듯,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녹여 줄 것입니다.

팔공산 은혜사는 무량수 무량광의 화신이신 오도자(五道者)와 삼성인(三聖人)의 상주도량입니다. 은빛같이 온 산하를 뒤덮고 법의 진리가 함께 하여 바닷물결이 충만하듯 은혜(銀海)의 불법이 살아 숨쉬니다. 신라 때 명산대찰의 하나이지만 흥망성쇠 유수천년에 먹구름 지나가고 작은 햇빛의 서운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시절인연이 도래하고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은해(銀海)의 팔공(八公)에 보살의 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은혜사에서는 3사7종을 모시고 보살계 법회를 갖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여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三 師**
- 갈마아사리 정은 도원
  - 전계대화상 동곡 일타
  - 교수아사리 금성 도견
- 七 證**
- 설조 (불국사 주지)
  - 근일 (부석사 주지)
  - 무비 (범어사 전강주)
  - 지하 (전 총무원 부원장)
  - 법조 (고운사 주지)
  - 법타 (평불협상임부회장)
  - 혜인 (제주 약천사 주지)

- 장소: 팔공산 은혜사 금강계단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
- 보살계 동참금: 2만원
- 문의전화: 은혜사 (0563) 35-3318, 5220 서울 전륜왕사 (02) 888-6300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주지 동곡일타 합장